

| 13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4170.63  | ↑ 코스닥       | 918.37   |
|                  | (+20.24) |             | (+11.86) |
| ↓ 금리 (한국예 9년)    | 2.910    | ↑ 환율 (원·달러) | 1467.10  |
|                  | (-0.013) |             | (+1.40)  |

# 고환율의 역습… 산업계 원가압박·투자부담 ‘비상’

원·달러 환율 1470원 돌파  
북미 투자 외화부담 눈덩이  
중소기업, 원가 부담 ‘한계’  
물가관리 겹쳐 식품업 긴장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 특성상 환율 급등은 즉각적인 원가 압박으로 이어지고, 북미 투자 확대에 나선 기업들의 해외 사업 비용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은 글로벌 생산망을 통해 일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 협력업체들은 원자재 조달 비용을 납품가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워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북미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공격적인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화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의 매출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겐 오히려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현대차 등 대기업은 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해 대응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정이 다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은 환율이 10% 오를 때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환율이 단 1%만 올라가도 영업이익률이 0.3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취약성의 차이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충북 진천의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수출 기업이라도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은 무시하기 어렵



“고생했어 우리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대구 수성구 해학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을 어머니가 안아주고 있다. /뉴스시

다”며 “특히 내수 기반 영세업체는 환율 충격을 온몸으로 맞는다”고 말했다.

해외투자 확대도 기업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북미를 비롯한 해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투자비 증가로 바로 이어진다”며 “변동 폭이 커질수록 사업 계획을 짜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대차그룹과 포스코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전기로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양사는 올해 4월 약 8조2000억원(58억달러) 규모의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 수준의 환율이 지속된다면 투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식품업체도 긴장감이 높다. 곡물·코코아·대두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 가

운데,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까지 겹쳐 가격 인상 카드가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제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환율 상승이 이를 상쇄했다. 코코아 가격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서아프리카 생산 차질로 공급이 줄어든 데다 달러 강세가 수입 단가를 밀어올렸기 때문이다. 원당과 유지류 등 주요 식품 원료도 동반 상승세다.

식품기업들은 재고 확보, 선지급 계약, 수입 시기 조절 등으로 환율 리스크를 완화하려 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까지 필요한 원재료는 확보했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는 불확실하다”며 “고환율이 길어지면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격 인상마저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의 물가 관리 기

조 속에 가격 인상은 사실상 막혀 있고, 제품 용량을 줄여 대응하는 방식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슈링크플레이션(내용량 축소형 인상)’ 표시제 도입 논의는 업계의 또 다른 부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상반기 중 원재료·가공식품은 물론 치킨·피자 등 외식 메뉴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율·물가·규제라는 ‘삼중고’ 속에서 식품업체는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기업들은 생산 효율화, 수출 확대, 프리미엄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내년을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환율의 파고를 견뎌내는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양성운·신원선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뉴테크놀로지 포럼’  
산업의 판도 뒤바꿀 핵심동력  
‘피지컬 AI’ 새 패러다임 시대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이란 주제로 오는 11월 19일(수요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시 한번 획기적인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AI는 소프트웨어(SW)란 한계를 깨고 물리적 현실과 결합하는 ‘피지컬(Physical) AI’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도 피지컬 AI를 ‘AI 모델의 완성형’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지컬AI는 조만간 모든 산업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SW 형태의 AI를 넘어, 센서를 통해 주위 현실 세계를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물리적 장치를 움직이며 경험을 학습하는 ‘몸을 가진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AI가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언어 영역에 한정됐다면, 피지컬 AI는 AI가 스스로 보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에서는 피지컬 AI의 이해에서부터 산업별 혁신 사례,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진화 등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 제 : 피지컬 AI가 바꾸는 산업 지형  
■일 시 : 2025년 11월 19일 (수) 오후 2~5시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  
■기조강연 : 유태준 한국피지컬협회장(마음AI 대표이사)  
강 연 :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강 연 :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이사  
강 연 : 양수열 클라우드웍스 CTO  
강 연 : 김하늘 에임인텔리전스 이사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참가신청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문 의 : 2025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etro<sup>®</sup>

## 10월 가계대출 5조 꺾충… 규제 전 선제수요 ↑

주담대 중심 뭉치돈 이동  
은행 이어 2금융도 증가

지난 10월에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일 주택시장안정화 방안으로 부동산 거래는 줄었지만, 이전에 증가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다. 대

출규제를 앞두고 미리 대출 받은 수요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달(1조1000억원) 증가 규모와 비교하면 4배 가량 급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

계대출 잔액은 1173조7000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3조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자체 대출 1조1000억원과 디딤돌 버팀등 등 정책성 대출이 1조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1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달 5000억원 감소한 것에

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중도금 대출이 미리 결정돼 있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11~12월까지는 10·15주택시장안정화방안 발표이전 주택거래량 증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 등을 포함한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8000억원 감소한 것에서 1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사(-3000억원→+1000억원)와 여전사(-1조1000억원→+2000억원)는 증가세로 돌아섰고, 상호금융권(+1조원 →+1조1000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저축은행(-5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신진장 금융위 사무처장은

“2금융권도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은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자 용도의 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45건 발생했다.

신사무처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 발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차단  
▲민주당, 세운4구역 재개발 뚫어 “종묘 오세훈 개인의 것 아냐”  
/사진 뉴스시

▲국방위, 군인 당직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2975억 증액 예산안 의결  
▲정부 21일 দিৱস সাধাৱণ সাধাৱণ চহৰীয়া…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모

▲감사원, 실업급여 경제위기시 8개월만에 고갈… 적립 방식 손질해야  
▲여당, 오는 12월 선출직 평가 착수… 현역 하위 20% 들개 봐 전전긍긍